

46

악을 선으로 갚은 요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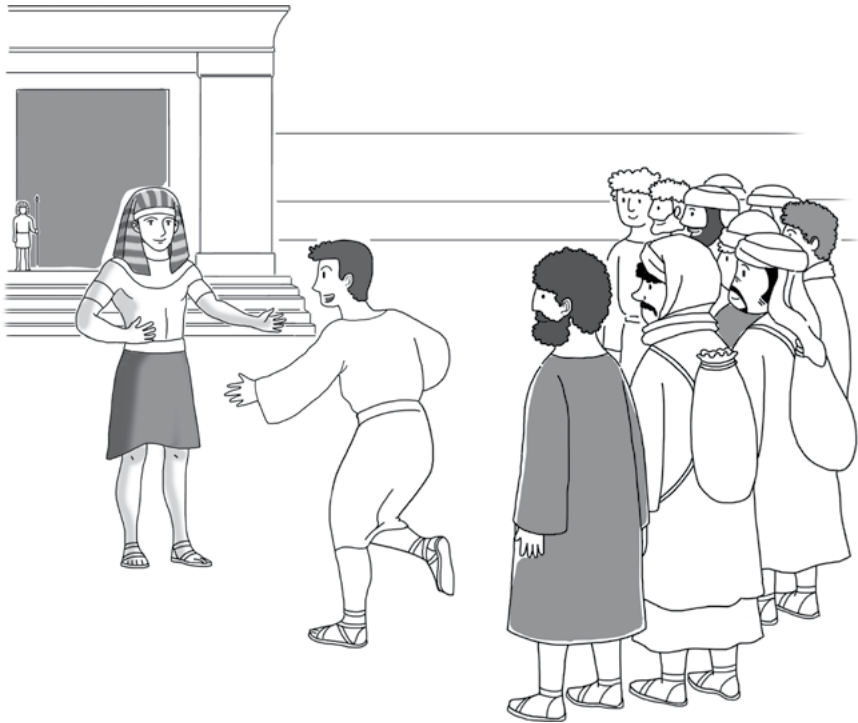
창 45:1~28

찬양 87장, 은혜찬송 153장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 94장 (주의 사랑으로)

오늘 배울



1.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 받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음을 압니다.
2.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함을 압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이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요 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창 45:5~8)



을 이해하기

야곱의 열두 아들 중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은 이집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하셨습니다. 요셉을 연단하신 후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대신으로 세우셔서 그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고 창성케 하십니다.

한편 형들이 사는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형들은 양식을 구하려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형들의 마음을 시험해 봅니다. 결국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떠올리고 후회하는 모습과, 막내 베냐민을 사랑하여 대신 희생당하려는 모습을 확인한 요셉은 자신이 요셉임을 형들에게 드러내며 큰 소리로 읊니다. 그리고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이 극심한 흉년 중에서 가족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말하며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자신과 형들과 세상을 바라봄으로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전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가 형제들에게 팔리는 모습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하시는 모습이며, 그가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는 모습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엡 4:32)

And be kind to one another,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just as God in Christ forgave you (Eph 4:32)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②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①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행동과 요셉이 총리가 된 후 형들에게 했던 행동을 비교해 봅시다(창 37:28, 50:19~21).

② 나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창 41:51~52, 45:7~8, 50:19~20)?

3

용서에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며, 용서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는지 얘기해 봅시다.



용서하는 사람



용서받는 사람

4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마 18:21~22)? 그리고 자신이 용서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상황을 적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일

잠 10:12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월

잠 17:9

화

고전 13:7

↑

엡 4:26~27

↓

엡 4:32

↓

골 3:13~14

↓

벧전 4:8



동명(同名)의 존 셀윈

대학시절에 권투를 잘하기로 이름났던 존 셀윈(John Selwyn)이 남태평양의 목사로 부임하였습니다. 한번은 그가 어떤 거짓 개종자에게 경고와 비난조로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먹을 불끈 쥐고 목사의 얼굴을 힘껏 쳤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셀윈은 팔짱을 끼고 그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힘센 팔과 큰주먹은 그를 때려 눕히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조용히 그의 태도를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만 부끄러워 정글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몇 년 후 목사는 중병에 걸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목사를 때렸던 사람이 후임 목사에게 찾아와 그리스도를 주(主)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진실성을 확인받고, 기독교인으로서 갖고 싶은 이름이 무엇인냐고 묻자 “존 셀윈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질문 있어요~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이 너무 쉽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이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고도 합니다. 무언가 어려운 일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쩡한 느낌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너무 쉽다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구원이 쉽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원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매우 쉽게 받았지만, 사실 그 구원을 받기까지는 참으로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신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미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공로만 믿고 아무런 노력 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과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매 맞고 옥에 갇히는 것은 물론이고, 갖은 잔인한 방법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까지 이 복음을 지켜왔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참으로 자기가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의지를 완전히 주님께 굴복시켜야 하는데,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순수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금방 마음이 낮아져 구원을 받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상담을 해도 마음이 낮아지지 않아 좀처럼 구원을 받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은 단지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공로가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자기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